

# 박영선 “유니콘 IPO끼리는 것 정상...차등의결권 제도화”

벤처캐피탈도 올해 4.6조 투자 예상

창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계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내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서 “유니콘기업과 스타트업이 IPO를 끼리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벤처캐피탈 투자 속에서 성장하는 트렌드가 형성돼 있다”며 “올해(스타트업·벤처기업)를 위한 제한적인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가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그는 “과거 IPO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제는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또 다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 시장의 규모와 상황이 바뀌었다”며 “그쪽에 자금 풀부하기 때문에 상장에 큰 매력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IPO를 하면 오히려 규제, 공개해야 되는 범위 확장 등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니콘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스타트업의 파이낸스(자금) 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다”

며 “이런 추세를 볼 때, 중기부는 올해 차등의결권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박 장관과 중기부는 연내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당(黨)에서도 최근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천명하며 벤처업계의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차등의결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과 중기부의 구상대로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동시에 공모 벤처펀드를 활성화해 벤처 성장 과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차등의결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적은 주식수로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어 부실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힘들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민단

체들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부당한 승계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 중기부 “제2벤처블 박차”... 모태펀드 1.9조원 조성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조9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 등 제2벤처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을 합해 총 90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모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중기부 이같은 대규모 모태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창업·벤처 시장에 다가온 제2벤처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벤처캐피탈 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 예상 금액은 4조36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기부는 창업단계부터 후속도약 단계까지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중기부는 출자 9000억원 중 5200억원(58%)을 ‘창업 초기’, 3800억원(42%)을 ‘도약’ 단계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5200억원(58%)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할 9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지방형 성장기업 등 스타트업 육성에 지원한다. 올해는 성장세를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도약(Jump-Up)하도록 스케일업(Scale-up) 영역에서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다.

나머지 3800억원으로는 9500억원 규모의 ‘도약(Jump-Up) 펀드’를 조성한다. 도약펀드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도약초기,

벤처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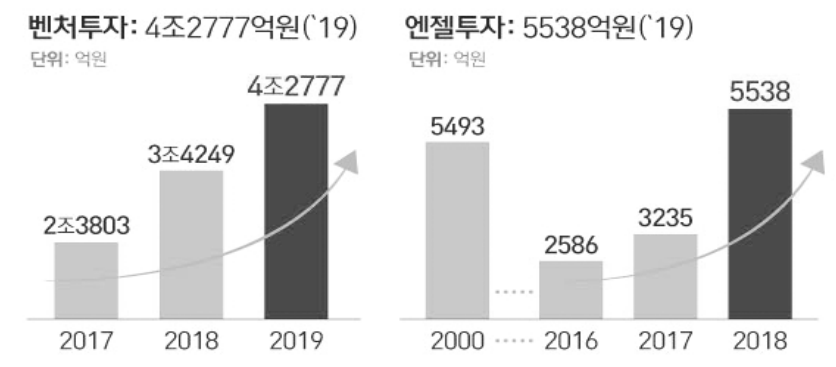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금액	2조858	2조1503	2조3803	3조4249	4조2777
업체수	1045	1191	1266	1399	1608

※ 벤처투자 현황 (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인 직접 투자	금액 876	1842	2193	2534	4207
투자	업체수 226	411	441	487	694
개인투자조합	금액 83	206	393	701	1331
투자	업체수 25	44	105	191	367
계	금액 959	2048	2586	3235	5538
투자	업체수 251	455	546	678	1061

※ 엔젤투자는 투자연도보다 3년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7년, '18년 변동 가능



Jump-Up I)에서는 창업초기를 벗어나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마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당 700억~800억원 규모의 중규모 펀드로 조성하며 총 조성규모는 7000억원이다.

2단계(도약중기, Jump-Up II)에서는 유니콘으로 본격 도약하는 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전용펀드로 조성한다. 펀드당 1200~1500억원 이상의 대형 규모로 조성하며 총 조성규모는 2500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제2벤처블 열기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에 이어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 등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프랑스 정부가 본 이들의 벤처 정책을 ‘라 프란테크’(La French Tech)라고 네이밍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벤처 정책을 네이밍 해서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선포하며 유니콘 후보기업군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빠르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

에는 전문엔젤 육성과 액셀러레이터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중기부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의 하위법령도 조속히 제정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촉진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인 만큼 신속히 시행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제도 변경사항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8일에 이어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사태와 관련해 일단은 관광업계를 비롯해 중소기업체 중 단계적으로 타격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분류했다. 관련 업체들에게 긴급 대우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반 및 체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중소기업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대응반 구성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메르스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준비태세를 갖춰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는 대응반은 우한폐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대출 금리 인하, 보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지난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각적 지원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역시 각 지방청을 통해 중국 우한 지역에 지사들 둔 진출기업을 파악 중이다.

## 인구이동률 13.8%...70년대 도시화 초기 수준으로 회귀

통계청 29일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710만명 이동

“이동성 높은 2030인구 감소, 경제성장 장기적 둔화가 원인”

산업화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국내 인구이동이 이후 점차 줄어 지난해 다시 1970년대 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구이동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의 감소, 경제 활력의 장기적 둔화 추세 등 우리 사회가 고속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동을 710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 3000명(2.6%) 감소했다. 인구 백 명당 이동을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3.8%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1972년 11.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1976년 677만 3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이동률은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활력의 장기적인 추세를 맥을 같이 해왔다.

인구이동률은 산업화 초기인 1970년에는 낮은 수준(12.6%)이었다가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1975년 최고점(25.5%)을 기록했다. 이는 1988년(23.7%)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다시 1970년대 초 수준인 13.8%로 회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20~30대고 60대는 이동 성향이 낮다”며 “과거에는 20~30대 인구가 늘었지만 최근에는 20~30대가 줄고 60대가 늘면서 인구이동이 이와 함께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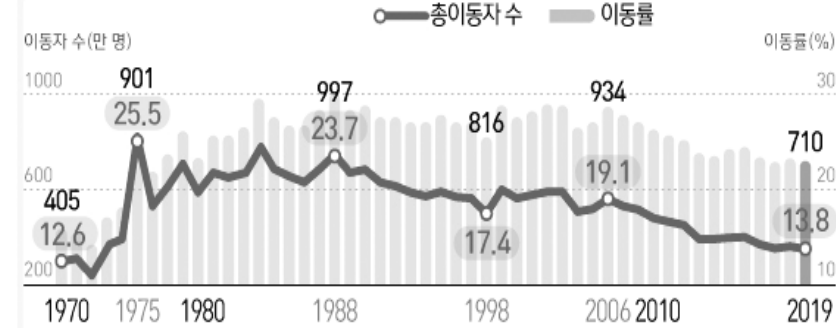
이어 “경제 성장률이 활발할 때도 인구이동이 많은데,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면서 인구이동도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몇년간 인구이동은 도시 건설과 주택 거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동률은 2017년 14.0%에서 2018년 14.2%로 올랐다가 2019년 13.8%로 다시 내렸다.

이는 2018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거래에 따른 이동이 늘었다가 2019년 열기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원래의 추세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은 주택매매거래량도 6.0% 감소, 신규주택예정 아파트도 11.6%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 총이동자수 및 이동률 (1970~2019)



전입 사유 중 ‘주택으로 인한 이동’ 사유가 16만 3000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이동도 이와 같이 2018년에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역별로 보면 인구 당 순유출자(유출자 수에서 유입자 수를 제외) 비율인 순유입률이 높은 도시는 △세종 7.3% △경기가 1.0% 순이었다. 반대로 순유출율이 높은 도시는 △대전 -1.1% △대구 -1.0% △울산 -0.9% 순이었다. 서울은 순유출율 -0.5%를 기록했다.

전입·전출지를 보면 서울을 떠나는 전출자의 63%는 경기로 이동했고 서울로 들어오는 전입자의 50.9%는 경기에서 왔다. 세종의 경우 전입자 출신 지역은 대전·경기·충남 순이었고 전출자 도착지는 대전·경기·서울 순이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 23.1%와 30대 21.0%가 가장 높았고 고령으로 갈수록 낮아져 60대는 8.7%였다.

## 과기정통부, 30일부터 올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자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9일 올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해외 유통 등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에는 올해 총 189억원이 편성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해외진출형 부문에 4개 분야(국제공동제작·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포맷형 방송콘텐츠(중소사업자 전용)·숏폼 방송콘텐츠)

△공익형 부문에 2개 분야(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단편물에 한해 중소사업자 전용)·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더빙) △방송통신협력 협정이행 부문까지 총 3개 부문 7개 분야에 전체 예산 139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 사업은 △초고화질(UHD) 콘텐츠 제작지원 △실현도전형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구분해 총 5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5G 환경에 적합한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와 실현도전형 콘텐츠 제작지원

을 강화했다”며 “또 Z세대 등 신세대 시청자들을 위한 숏폼 방송 콘텐츠 지원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방송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동제작, 8K UHD 등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UHD 영상 규격을 제시해 국내 초고화질 콘텐츠의 품질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AI가 잘 나온 사진 골라 드려요”

네이버 클라우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가 찍은 수많은 사진 중 주요 장면만 추출해 보여주는 ‘요약보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요약보기는 스크린샷(캡처) 또는 글자 위주의 사진을 거르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자가 직접 즐겨찾기에 추가한 사진과 인공지능(AI)이 분석한 잘 나온 사진을 확대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클라우드에 올려진 기존 사진 중 비슷한 사진을 하나로 묶어 사진앨범처럼 만들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 측면의 관리와 감상이 쉽도록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 존슨앤드존슨, 우한폐렴 백신 개발 착수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우한 폐렴) 백신 개발에 나섰다. 존슨앤드존슨은 기존 바이러스 백신 기수를 활용해 1년 정도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후 대규모 수요에 대비해 생산량을 30만 도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존슨앤드존슨이 가세하며 백신 개발 프로그램은 최소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백신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폴 스토폴스 존슨앤드존슨 부회장 겸 최고연구개발 책임자(CS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백신 후보를 개발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원화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고 폭넓은 협력 가능성이 높도록 바이러스요법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스크리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DR공고와 르완다에 배치돼있는 에볼라백신의 개발과 제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며 “지카바이러스 백신 후보를 만드는 데도 같은 기술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존슨앤드존슨은 백신 생산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백신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